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1월
(Vol. IV)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
(막 4:14)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10월경부터 저희의 깊은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해변 교회와 마띠 교회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입니다. 11월이 되면서 그동안 교회 출석을 등한히 했던 아이들이 멧적은 얼굴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린이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성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공연히 모두들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와는 달리 12월 성탄절이 가까워 짐에 따라 많은 아이들을 만족시켜야 할 '성탄 선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이 연례 행사처럼 또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선물 준비 계획이 하루에도 수 없이 번덕스럽게 오락가락 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은 이유로 아쉽지만 금년에는 해변 교회의 New Spirit Program에 속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New Spirit Program 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의 실망스런 얼굴들이 끊임 없이 떠 오르는 까닭에, 할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기억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도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준준'의 부모는 2년전부터 New Spirit Program을 통하여 해변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변함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직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준준'의 부모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로델'의 어머니도 이번 성탄절에 그냥 지나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두사람씩 예외를 두고 성탄 선물을 하기로 하다보니 점점 더 인원수가 늘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물론이고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성탄 선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를 위한 좋은 선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변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나누며

이곳에서 가장 활발한 업종 중의 하나는 중고품 가게입니다. '옷가이'라고 불리는 중고품 가게는 마치 식품이나 생필품 가게처럼 모든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이상 못써서 또는 고장이 나서 버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인 집에서 제공하는 아주 오래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라면 벌써 오래 전에 버렸을 법한 아주 낡은 냉장고입니다. 낡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인집에 연락을 하면, 2~3명의 기술자가 동원이 되어 수리를 함은 물론이고, 낡은 외관을 흰색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하여 새 냉장고처럼 만들어 주어서 할 말을 잃어 버리게 합니다. 앞으로 1~2년은 불평없이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옷가이'에 가면 이렇게 재활용된 가전 제품부터 남이 입던 낡은 속 옷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낡은 신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짝이 없는 신발마저도 많이 진열이 되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값싼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옷가이'에서 낡은 신발이라도 사서 신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동안 성탄절때 마다 이들에게 신발을 선물로 주어 왔는데, 이번에도 많은 고민없이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성탄 선물로 '신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 3:27)

역시 예상한 대로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성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도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짐작을 하고 있는 성탄 선물을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어른과 아이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한 사람씩 신발을 신어 보면서 나누어 주는데, 신발 사이즈는 별로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저 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새 신을 신은 젊은 청년은 너무 좋아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새 신발을 고르고 나서, 신고 온 낡은 슬리퍼를 교회에 그냥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안이 온통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복된 성탄절에 참으로 부족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귀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띠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나누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 29:11)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때때로 잊을 정도로 복잡하고,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과 새해를 기다리며 지나는 이곳의 12월은 더욱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거의 11월말부터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연례행사와 같이 집 앞이 소란해 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반 강제적인(?) '모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무리들은 다양한 타악기까지 동원하여 온 동네를 한바탕 소란하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대목' 성탄절을 앞두고 급조한 모습이 역력한,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은 무리가 있는 반면, 여느 합창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는 무리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날이 저물면 이러한 다양한 무리들이 쉬지 않고 찾아와서 집 앞에서 한바탕 노래를 부르고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제 방문하여 돈을 받아간 무리들이 오늘 또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지 새로운 무리들이 더 극성스럽게 찾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2월 한 달 쉬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란스럽게 외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이방인인 저에게 참으로 독특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전통에 따라 12월 31일 저녁부터 한 해를 힘들게 했던 귀신을 물리치기 위하여 모든 도구를 동원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경적 소리, 나팔 소리, 무엇인가 두드리는 소리, 합성 소리가 얹혀서 1월 1일 0시를 절정으로 사방 천지가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소에 아주 잠잠하신 저희 앞집 아저씨도 이날 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소음 대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가까이에서 저희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폭죽을 몇 해전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소리로 놀라는 일은 없어 졌는데, 그 대신 고음의 나팔 소리는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마침내 0시가 지나면서 이러한 전통 귀신 쫓기 절차가 수그러지고, 온 식구가 모인 가운데 한밤 중에 새해 첫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날 만큼은 아무리 가난해도 돈과 풍요를 상징하는 둥근 과일을 풍성히 늘어 놓고,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새벽 내내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1월 1일 새해 아침은 모두들 늦잠 가운데 온 동네가 적막이 흐를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과 같이 새해 첫 날이 주일인 경우입니다. 짐작하건데 대부분의 교인들도 밤새도록 새해 맞이에 몰입을 한 까닭에, 놀랍게도 정작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에는 기대와는 달리 아주 적은 교인만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뜻 깊은 예배인데.....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 첫 예배에 참석을 하였지만, 많은 빈자리를 보면서 여기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선교지'임을 새해 첫날부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마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실이 세워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도 학생들을 대할때 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학생들과는 개인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남은 자주 있었지만, 각각의 학생들과는 주 안에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정규 수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 담고 있는 선교 캠프에서 매일 담당해야 하는 일과 어려운 교통편으로 인하여 마띠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한국어' 수업만이라도 자주 할 수 있다면,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런데 작년 말, 오랜동안 기도해 왔던 차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더불어서 마띠 학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여러가지 신호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여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2월 첫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요일에 집안 일을 도우는 까닭에 전교생 380여명 중에서 많아야 30여명 정도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 아내와 함께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간식도 먹으며 오붓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2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나 노래외에는 전혀 한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깝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차 있었습니다. 우선 교장 선생님께 지원하는 학생들의 간단한 신상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부터 참가를 원하는 학생수가 저희가 예상을 했던 30여명의 학생이 아니라, 무려 132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지원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만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의 본교인 디고스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132명이 모인다고 하니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지 난감한 지경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이므로 감사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과 환경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빈 손으로 참여하게 될 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 나가야 할 지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2년, 이곳에 정착을 한 지 벌써 4년을 지나며 소망 가운데 새 해를 시작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마른 뼈다귀와도 같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며 전진하게 하시는 생생한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금년에도 감사와 순종으로 이 귀한 대열에 많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겔 37:4)**

기도 요청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과 한국어 학교를 위하여
- 성령 충만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